희망이 꽃피는 환희가 대지에 넘쳐 흐르네

본래 지닌 如来의 德性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성파 스님
조계종 종정



진리(真理)의 새벽을 열어서
현전면목(現前面目)을 보이니
일월(日月)은 하늘의 공덕(功德)을 빛내고 산과 들은 초록등을 밝혀 법계(法界)를 장엄합니다.

곳곳에서 현묘(玄妙)한 기틀을 갖춘 이가 신령(神靈)스러운 빛을 놓으니
이르는 곳마다 굴레에서 벗어나는 도탈(度脫)의 문(門)이 열리고 비로소 보고 듣는 기틀을 얻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시방법계(十方法界) 문(門)을 다 열어놓고 찾아보아도 부처님 계시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재재처처(在在処処) 즉위유불(即為有佛)인데 어디에 계시는지 있는 곳을 알 수 없습니다.

생멸(生滅)이 없고 거래(去来)가 없이 법계(法界)에 충만하여 꽃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르는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은현자재(隱現自在)하여 중생의 고통이 있을 때는 사랑과 자비로 그 모습을 나투고 적정삼매(寂靜三昧)에 들 때는 자취를 감춥니다.

부처님은 구세(救世)의 덕(德)과 무연대비(無緣大悲)를 갖추고 있어 중생의 고통이 있을 때는 구세대비(救世大悲)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대비(大悲)는 베풀수록 구제(救濟)의 덕화(德化)는 더욱 넓어지고 나눌수록 중생을 요익(饒益)케하는 이타적(利他的) 덕행(德行)은 깊어집니다.

비록 중생이 무명(無明)을 지니고 있지만 무명(無明)은 도(道)를 이루는 바탕이요, 번뇌(煩惱)는 살아있는 부처를 이루는 살림살이입니다.

빈녀(貧女)는 본분겸추(本分鉗鎚)로 막혀있던 관문(関門)을 열어 중생의 가슴에 천지(天地)를 밝히는 비원(悲願)의 정(灯)을 밝히 듯 불자(仏子) 여러분도 삼독(三毒) 속에 갇혀 자기를 잃지 말고 본래부터 지닌 여래(如来)의 덕성(德性)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동체대비로 불국정토 이루세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오늘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인류의 스승이시며 뭇중생의 구원자이신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오며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북한 핵문제로 동족 간의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의 정신으로 가진 자가 더 베풀고 나누어 준다면 이 사회는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불국정토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는 인연의 굴레에 함께 묶여 있는 공업(共業)의 세계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을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회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보시와 이타의 보살정신으로 이웃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때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지며 나의 무명과 고통도 저절로 소멸될 것입니다.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미움은 미움으로서 풀어지지 않고 미움을 내려놓을 때에 풀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각 가정과 이 사회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일상이 지혜 자비 충만할 때 날마다 부처님오신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희망이 꽃피는 환희로움이 산하대지에 가득한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봉축탑등을 밝히면서, 부처님오신날에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기원했습니다. 정관계와 의료계, 그리고 전국민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엔데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존재의 실상 가운데 하나는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탄생 일성으로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선언하셨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최상의 지혜를 갖추고, 온 생명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가장 훌륭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할 때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이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늘 룸비니 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가 하나로 꽃피는 세상이 되길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을 맞아 온 겨레와 사회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자비가 충만하고,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가 마땅히 해결하여 편안케 하리라"라는 탄생게(誕生偈)를 읊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그 정신대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온 세상이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가 공존과 상생의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이기적 욕망과 분노, 갈애와 질투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처럼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고통과 괴로움을 딛고 나 자신과 우리는 물론 온 세계가 하나로 꽃피는 일화(一花)의 세상이 되길 발원합니다.

이땅에 연화정토를 구현합시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천상천하 유아독존,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처음 걸으신 일곱 걸음으로 이 땅에는 새로운 광명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다섯 가지 번뇌가 세상을 더럽히는 진흙 같은 세상이지만 이미 모든 만물은 부처의 성품을 갖추었으니, 깨어있는 눈으로 바로 보아 무명의 어둠을 떨쳐내고 고해의 실상을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태종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밝힙시다. 상생과 공존의 등불을.

거리마다 오색 연등이 불을 밝히고, 법당에서는 스님의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처마 끝 풍경소리가 새로운 세상을 깨우고 눈을 뜨게 합니다.

진흙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혼탁한 세상일수록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염화미소를 마음껏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평화와 생명 행복의 한해로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아 법석(法席)을 열고 봉축의 환희와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팬데믹을 일으켜 인류를 유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도 아직은 여전합니다.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봉행하는 우리들의 불작불행(佛作佛行) 인연공덕(因緣功德)으로 생명 잃은 희생자들은 열반락을 얻어 영원한 안락을 누리며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이들은 하루 빨리 고통을 여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며 부처님의 가없는 자비와 지혜광명으로 국가와 인류에 평화가 깃들고 모든 생명체가 나날이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영원한 빛으로 오신 부처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5월이 되면 어김없이 거리에 오색등이 걸리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중생들의 무명을 밝히기 위한 연등 행렬은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미망을 깨우쳐주고자 육신을 나투시어 미래의 영원한 생명체인 법신의 참모습을 보이셨고, 생사 해탈을 통해 대자유인, 참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여의 법신을 갖추고 있음을 선언하시고 깨달음에는 너와 내가 없으며, 삼라만상 모든 생명이 하나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참 생명의 가치는 그 내밀한 진여의 빛으로 새롭게 산하대지에 새 생명처럼 소생해야 합니다.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따라 정법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온 인류 해탈구원문 열자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봉축 드리며,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편안하기를 서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삼계에 고통 받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팔만사천 가지 해탈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나가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니 마음버릇 하나 고치면 바로 부처님의 장엄적멸궁입니다.

하지만 무량한 세월동안 탐욕 속에서 부처님의 대자비의 문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화택문 안에서 윤회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의 본심(本心)인 자비의 마음이 온 세상을 밝히고,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안녕이 대일여래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믿고 따르는 고운 마음 부처님 닮아가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강에 물이 맑으니
달이 와서 머무르며
믿고 따르는 고운 마음
부처님을 닮아가네.

여래의 자리는
오고감이 없으나
다만 일대사인연이라.

중생의 부름에 응하시어 사바에 나투시니
그 은혜 깊이 감사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법의 등불 공양 올리세.

생사의 윤회는 고통이요,
부처님 세계는 안락이니
일심으로 귀의하여 찬탄하며
국운 융창과 인류의 행복을 지심 발원하고

지혜와 자비로 만나는 부처님
탄신을 봉축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성불의 길을 향해
용맹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생각 합니다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룸비니 동산에 꽃비 흩뿌려 봉축하고 푸른 하늘 넓은 벌판이 함께 기뻐하니 때와 장소 가림 없이 부처님이 오시도록 마음 맑은 선남선녀들 손 모아 받듭니다.

셀 수 없는 생애 동안 쌓아온 원력으로
하늘과 땅 일곱 걸음 온 세상 살피시고
힘들어 신음하는 뭇 생명을 보듬으며
사람 사는 청정국토를 그토록 그리시니
오늘 또 정성을 바쳐 그 길을 새깁시다.

사람의 목숨은 높고 낮음을 가릴 수 없고
사람살이 귀하고 천함이 본래 있지 않다며
평등과 정의의 목소리 저잣거리 넘쳐나도
허공에 메아리처럼 빈 소리로 흘러가니
사람 사는 그 세상이 다시금 그립습니다.

입고 먹고 머무는 생활이 풍요를 누리고
사람을 넘어설 듯 기술문명의 끝은 몰라도
공평과 공정은 늘 제 자리에 머문다며
나날이 아프고 볼멘 투정이 높아가지만
지구촌은 그래도 살고 싶은 곳입니다.

인생살이 복잡하여 이래저래 주장해도
이 길을 다시 살펴 저 길과 맞추어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너와 내가 어울리고
깊은 갈등 힘겨운 질병 더 무거운 문제도
끊는 물에 얼음 녹듯이 만사가 형통합니다.

자기를 바로 보고 옆 사람을 보살펴라.
참회 지혜 자비는 늘 그대로 진실이거늘
지금 나부터 실천하고 사회를 돌아보며
사람 사는 멋진 사회 여기서 열어갑시다.

우리 모두 다시금 부처님오심을 봉축합시다.